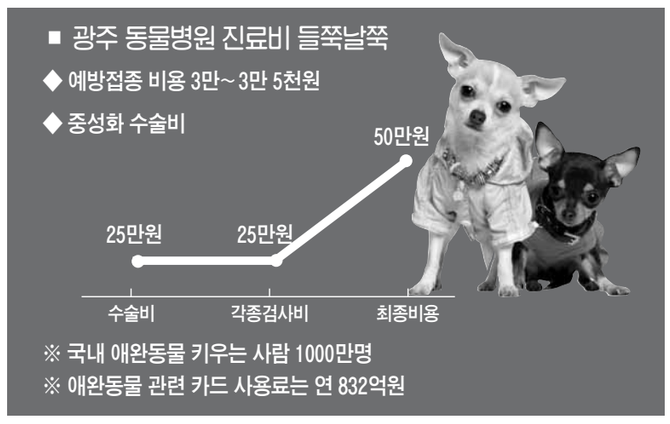
광주·전남 애완견 5만 마리…동물병원 진료비 '천차만별'

'동물의료수가제' 폐지 자율적 책정 … 이용자들 혼선

예방접종·중성화수술 등 기준 없어 부르는 게 값

대부분 치료 내용도 몰라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 병원을 찾는 시민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들쑥날쑥한 가격에 미흡한 정보 제공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1000만 명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에 따른 전체 대상 반려 동물(개)은 광주 4만3000마리, 전남 8805마리 등이다.

전국에서 이들이 쓰는 애완동물 관련 동물 약품과 치료 등 가축병원 업종의 카드 사용액도 지난 8월 말 현재 618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여신금융업계는 파악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견줘 17.2%가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서비스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동물병원비의 경우 광주지역 동물병원 20곳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술비·예방접종비에 대해 문의한 결과, 가격은 최대 17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광산구 A동물병원은 심장사상충 등 예방접종비가 한 차례에 3만5000원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북구 B동물병원에선 같은 예방접종이지만 가격이 3만원 등으로 차이가 났다..

수술비의 경우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 됐다.

동구 C동물병원과 서구 D동물병원 등 두 곳의 애완견 암컷(10㎏ 미만) 중성화수술비는 최대 17만원의 가격 차이가 났다.

C·D동물병원 모두 수술비 자체는 25만원으로 동일했으나, 수술에 필요한 추가 비용에서 큰 차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C동물병원에선 혈액검사(3만원)·마취(3만원)·보호대(8000원) 등 추가비용이 6만8000원이었지만, D동물병원은 혈액검사(5만원)·마취(5만원)·수액(1만5000원)·진통제(1만원) 등 추가비용이 25만원이었다.

각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다르고 인건비·검사비에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게 동물병원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물어보지 않으면 친절히 알려주는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수의학 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대부분인데도, 수술 과정에서 어떤 처치가 취해지는 지 제대로 설명을 듣기 쉽지 않아 병원에서 권하는 치료를 모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초진료 등 병원 진료비가 들쑥날쑥하고 '천차만별'인 데는 지난 1999년 '동물의료수가제'가 폐지된 영향이 컸다.

정부의 취지는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지만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탓에 오히려 소비자 부담만 늘어났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반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 규모도 커진 점을 감안, 정부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병원비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수의사회 관계자는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 수술비는 일정한 가격대가 정해져 있지만 상황에 따라 간 검사 등 여러 검사비가 청구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심하게 보일 수도 있다"며 "수의사회 차원에서 진료비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중이지만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고 농식품부의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언제 완료가 될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통진당 대리투표 '유죄'

광주지법, 4명에 30만원~100만원 선고

법원이 정당의 당내 경선 역시 대선 등 여느 선거와 같이 보통·평등·직접·비밀 등 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통합진보당 대리투표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당내 경선 대리투표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같은 사례 다른 판결'이 됐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전우진 부장판사는 16일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주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주씨에게 투표를 위임한 3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4대 원칙은 대선, 총선 이외의 선거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돼 왔고 관습법적으로도 정당 선거에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굳어졌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량과 관련해서는 "정당 내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투표를 위임한 이들의 의사에 반한 결과는 없었고 진보당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 선거시스템을 갖추면서 동일 IP에서의 투표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등 선거관리를 허술하게 한 당의 책임도 지적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월에도 대리투표를 한 2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다른 지법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이와 반대로 "당내 경선에는 직접 투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맞춤형 취업박람회

16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 3층 직업훈련실에서 열린 제3회 맞춤형 취업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와 광주 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특혜의혹' 순천 펜션단지 허가 경위 수사착수

순천시 펜션단지 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순천시 별량면 용두마을 펜션단지 조성 허가에 문제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서류를 시로부터 제출받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했거나 사업주와 유착 했는지 여부도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도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불법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다. 순천시는 조만간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고교생 1명 결핵…집단 감염 우려 전교생 검사

광주 모 고등학교

광주의 한 고교 학생과 교사 등 8명이 결핵 양성반응을 보여 보건당국이 전교생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6일 광주 동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주의 해당 고교에서 학생 1명이 결핵 진단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110여명을 대상으로 한 피부반응 및 혈액 검사를 한 결과 7명에게서 결핵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결핵 진단을 받은 학생은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했으며 결핵 양성반응이 나온 7명에 대해서는 감염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 3개월간 약물을 이용한 예방화학치료를 진행했다.

보건당국은 추가 전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개월 후인 이달 초부터 전교생 및 교직원 990여명을 대상으로 1차 피부반응 검사를 실시, 학생 134명과 교직원 45명 등 179명에게서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보건당국은 이날 오후 이들 179명을 대상으로 2차 혈액검사를 실시, 보건환경연구소에 결핵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모두 결핵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으며 몸이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병할 수도 있지만 확진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포항 앞바다 화물선 침몰 선원 9명 사망·2명 실종

지난 15일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발생한 8000여t급 파나마 화물선 침몰사고로 외국인 선원 9명이 숨지고 8명이 구조됐다. 함께 타고 있던 선원 2명은 16일 오후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나 구청 복지과장" 노인들 돈 가로채

쌍나팔

○…'구청 복지과장' 인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해 주겠다며 70대 노인에게 접근,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백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달아난 40대 여성이 철창행

○…16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최모(여·49)씨는 지난달 20일 밤 9시 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S아파트 내 공원에서 만난 A(여·73)씨에게 '복지과장'이라며 접근, A씨의 통장에서 200만원을 빼가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10명으로부터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채거나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

○…경찰은 최씨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감안해 구속한 뒤 여죄를 추궁중.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비만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중앙초교
계림동
금남로
주차장 입구
대한생명
구.한미쇼핑
동부소방서
고객 주차장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사|원|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웨이츄레스(신입 및 주임급) 0명
2.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3. 급 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4.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포상, 단체상해보험가입, 교통비 지급 등
5.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충원시까지(충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7. 접 수 처
– 주 소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담 당 : 경영지원팀 오승태 부팀장
– 전 화 : 061-320-7717
– 팩 스 : 061-320-7710
– 이메일 : seungtae01@naver.com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